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김주용(金朱容)* · 이지연(李之漣)**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아동의 낙관성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와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를 통해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4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231명과 연구대상의 어머니 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을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아동의 낙관성이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아동의 학교적응 간에 매개효과를 보이고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를 통해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 낙관성, 긍정적 강화, 학교적응

* 인천대학교 대학원생

** 인천대학교 교수

I. 서론

기존의 연구들이 심리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긍정심리학은 평범한 보통사람들에게 다가간다.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논문들과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연구한 것들의 비율이 17:1이라는 것만으로도(MacLeod, 2000) 부정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긍정심리학은 심리적 안녕, 행복, 만족 등 긍정적인 경험을 조명하였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낙관성은 긍정심리학의 한 영역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920년대에 Freud를 비롯한 정신 역동적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성을 현실 세계를 왜곡해서 바라보게 하는 허황된 기재로 인식하였다. 그에 따라 1970년대 이전에는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는 자신과 현실의 상태를 가감 또는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수용하는 것을 뜻했으나 최근 많은 연구(Scheier & Carver, 1994; Chang, 1998; Chang & Sanna, 2001; Symister & Friend, 2003)는 낙관적인 사람의 심리 상태가 비관적인 사람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Chemers, Hu & Garcia, 2001). 예를 들면, 대학 신입생의 첫 학기 학교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이 입학한 날부터 성향적 낙관성을 포함한 여러 성격적 요인들을 관찰하였다. 3개월 후에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낙관적인 학생이 학교적응에서 낮은 스트레스를 보여 낙관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적응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이 연구(Chemers, et al., 2001)는 낙관성은 여타의 다른 성향이나 성격보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심리적인 건강을 위한 낙관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낙관성은 일반적으로 현실과 미래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며 자신의 행동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성향적 낙관성과 귀인적 낙관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성수, 2006). 성향적(dispositional) 낙관성은 선천적 또는 기질적으로 자신이 경험하게 될 사건이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Carver & Gaines, 1987; Scheier & Carver, 1992)하는 것으로 낙관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보다 우울을 적게 보이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에 상황을 잘 수용하고 개인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갖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Scheier & Carver, 1992) 어떤 목표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비록 진행이 더디거나 힘들어도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기대하는 바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여기면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과 목표를 분리해서 생각하게 된다.

귀인적 낙관성은 과거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낙관성과 비관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Peterson, 1999; Seligman, 1991)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긍정적 측면을 보는지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지에 따라 개인이 미래를 낙관 혹은 비관으로 기대하게 되는 심리적 경향성을 의미한다(Peterson & Bossio, 1991). 즉, 비관적인 사람은 나쁜 일들은 항상(영구적), 운이 없는(전반적)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그것은 항상 그들의 잘못(내재화)이라고 하는 반면, 낙관적인 사람은 때때로 나쁜 일들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일시적, 특징적) 가끔씩 타인의 잘못일 수 있다고 믿는다(외재화)는 것이다.

이상의 낙관성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각각의 낙관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Caver & Scheier, 1992). 그러므로 각각의 이론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낙관성의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의 두 가지 접근에 대한 개념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겠다(Peterson, 2000).

Seligman(1991)은 낙관성과 같이 인생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고 하였다. 낙관성은 학습이 가능하고 한 번 숙달되면 스스로 유지되는 속성이 있으며 비관적인 사람도 낙관성을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밝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릴 적에 비관적인 인생관을 갖게 된 아동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부정적인 자기상을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슬픈 감정, 사회적 위축, 무기력감, 희망상실, 정신-운동 협응 손상, 학업 및 사회적 실패감, 초조감, 무망감, 불면증, 식욕감퇴 등에 빠질 수 있다. 비관적인 아동은 낮은 자존감을 나타냈고(Fischer & Leitenberg, 1986) 절망적인 순간에 자살충동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Kazdin, French, Unis, Esveld-Dawson, & Sherick, 1983) 아동에게 비관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우울증에 대한 불안요소와 좋지 못한 교우관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Garber, Quiggle, Panak, & Dodge, 1991; Hilsman, & Garber, 1995; Nolen-Hoeksema, Girgus, & Seligman, 1992).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비관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 현실로부터 자신을 분리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Sharpe, Brown, Thompson, & Eckman, 1994). 반대로, 낙관성은 위기상황에서 더 잘 적응하게 하고(양옥경, 최경민, 2001; 김성수, 2006) 낙관적인 아동들은 비관적인 아동에 비해서 입학 후 2년 동안 우울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Jaycox, Reivich, Gillham, & Seligman, 1994). 또한 긍정적인 아동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 낮은 우울을 보였다(Snyder, Hoza, Pelham, Rapoff, Ware, Danovsky, Highberger, Rubinstein, & Stahl, 1997).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아동들이 친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었다(Deptula, Cohen, Philipsen, & Ey, under review).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중 면접을 통해 자신이 낙관적이라고 밝힌 아동은 의학적 처치나 치료에 좀 더 순응

하였다(Gudas, Koocher, & Wypij, 1991) 낙관적인 아동은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을 적게 나타냈다(Neverlien & Backer, 1991).

아동에게 있어 낙관성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Seligman(1991)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의 귀인이 아동의 행동유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Scheier와 Carver(1993)는 성향적 낙관성의 개인적 차이에 대해 성공적인 혹은 실패에 가까운 과거의 경험이나 부모의 역할 모델의 중요성 특히, 어머니의 칭찬과 신뢰 등을 강조하였다. Peterson과 Bossio(1991)는 성인 초기에 성향적 낙관성과 비관성에 관해 부모 행동에 대한 유년 시절의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즉, 부모의 역할 모델로 인하여 낙관적인 부모의 자녀는 낙관적으로, 비관적인 부모의 자녀는 비관적으로 자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역할모델과 양육태도가 아동 낙관성과 비관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아동의 낙관성보다는 부모의 역할이나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낙관성이 부모의 역할모델과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아동의 낙관성에 어느 정도의 상관성 또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낙관적인 부모와 비관적인 부모의 역할모델과 양육 태도는 서로 다른지, 낙관적인 부모의 역할모델과 양육태도는 아동이 낙관적으로 자라게 하고 비관적인 부모의 역할모델과 양육태도는 아동이 비관적으로 자라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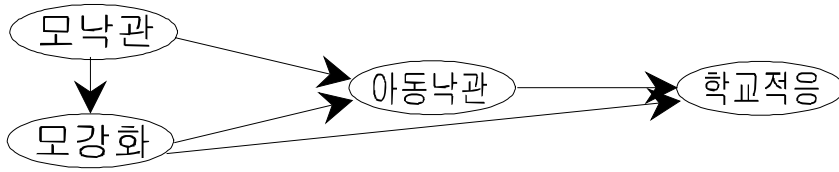
요컨대, 낙관성은 아동이 교우관계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이나 질환과 같은 위기 상황 등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낮은 자존감과 높은 우울감, 자살 위험 정도 및 교우 관계의 문제 등 비관적 요인들은 아동에게 있어 자기 충족적 예언 등에 부정적인 기대심리를 가져온다(Kashani, Reid, & Rosenberg, 1989; Nolen-Hoeksema, Girgus, & Selligman, 1992). 또한 낙관성은 앞에서 언급한 대학 신입생에 대한 연구(Chemers, et al., 2001)와 낙관적 또는 비관적 아동의 교우관계에 대한 사례(Garber, et al., 1991; Hilsman, et al., 1992)처럼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왕따,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이나 과도한 학습량 부여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Miller(1999)는 개인의 행동은 그가 가진 생각에 대한 결과라고 하면서 내재화된 성향이나 가치관 등이 행동으로 외현화된다고 하였다. 부모의 일상적인 관계가 아동의 낙관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때, 부모의 낙관성이 아동과의 일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아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내재된 생각과 관점을 갖게 하고 그것은 행동으로 외현화되어 끊임없는 긍정적 강화의 역할을 수행하여 아동의 심리적인 특성 특히, 낙관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강화는 특정한 행동의 발생에 즉각적인 결과가 뒤따르고 결과적으로 행동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가

정이나 학교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끊임없이 작용한다(윤치연, 이영순, 이효신, 천성문, 2002). 부모나 교사가 아동을 칭찬하거나, 상을 주거나,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을 사주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어떤 일에 대해 관심 있게 질문하거나 할 때 긍정적 강화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황매향, 1999). 부모가 소리치기, 비난, 때리는 등의 부정적 행동을 할 때 아동은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게 되고 단순히 외적으로만 귀인하며 이것은 아동의 발달에 있어 회피적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부정적 강화의 역할을 하게 된다(DeKlyen, Speltz, & Greenberg, 1998). 그리고 부모의 처벌이나 야단 같은 행동이 반복될 때 아동은 부모에게 압도되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성숙시키지 못하게 되며,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적절히 조절할 능력이 손상되어 자신의 반응을 억제하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관계형성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게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기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Dodge, 1991). 반면, 부모가 아동에게 긍정적인 강화를 할수록 아동의 정서는 안정되어진다(오성심, 이종승, 1982). 이것은 부모의 부정적 강화는 아동이 비관적인 성향을 내면화하도록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아동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고, 칭찬을 비롯한 긍정적 관계를 통해 긍정적 강화를 한다면 이것은 아동의 낙관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부모의 강화는 아동의 학교 적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아동의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가족 구성원 간에 신뢰와 애정에 기초하고 있는 개방된 가정의 아동일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김지현, 1996).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차유림, 2001)에서는 부모-자녀 간에 감정이입과 지지적 발언 등의 긍정적 강화가 강할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강화는 아동의 긍정적인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었고 반대로 부모의 부정적 강화는 아동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Goleman, 1995) 긍정적 정서조절을 가진 아동은 또래 사이의 인기도가 높아 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는 등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ssidy, Parke, Butkovsky, & Braungart, 1992). 요컨대,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성격, 심리적 건강, 스트레스 등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결정되는 양육행동(Belsky, 1984)은 아동의 발달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을 강화시켜 아동의 심리적인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적응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문혁준, 1999; 신숙재, 1997; Abidin, 1992; Werner & Smith, 198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특히, 학교생활에 중요한 요인인 낙관성에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아동의 학교적응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낙관성이 부모 역할모델과 양육태도에



[그림 1] 가설 모형

영향을 주어 아동의 낙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근거(Scheier & Carver, 1993)하여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에 대한 낙관성의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를 통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것은 어머니의 낙관성이 외현화되어 실생활에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자극하는 긍정적 강화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으로 어머니의 역할 모델이 아동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와 긍정적 강화를 통해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에 대한 부모 역할모델과 양육태도 등으로 외현화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가정에서 아동 양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단서를 찾고 학교에서도 가정과 연계한 아동 지도의 중요성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아동의 낙관성과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를 보는 것이므로 아동의 낙관성 척도(Youth Life Orientation Test)의 표적대상이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인 것과 부모강화 척도의 표적대상이 초등학교 5, 6학년임을 고려하여 경기도 소재 4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245명과 연구대상 아동의 어머니 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설문지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3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남학생은 120명(52%), 여학생은 111명(48%)이었고 5학년은 112명(48%), 6학년은 119명(52%)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낙관성 척도(th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 LOT-R)

어머니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의 LOT-R(th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을 사용하였다. LOT-R은 성향적 낙관성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OT-R이 단일차원인가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분해야 하는가의 논쟁(Scheier & Carver, 1985; Mehrabian & Ljunggren, 1997; Marshall, Wortman, Kusulas, Hervig, & Vickers, 1992; 신현숙, 류정희, 이명자, 2005)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Scheier와 Carver(1985), Mehrabian과 Ljunggren(1997)의 주장에 근거해 비관성의 고유영향력을 감안하지 않고, 낙관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6개의 문항만이 낙관성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나머지 4개의 문항은 참여자가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짜문항(Filler i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6개 문항은 다시 3개의 긍정적 진술문항과 3개의 부정적 진술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OT-R은 5점 Likert 척도로서 0에서 4중 하나에 응답하게 되어 있고(0 : 매우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 총점 범위는 0점에서 24점이며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을 것으로 해석한다. Scheier 등(1994)의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의 Cronbach's α 는 .78이었으며 4개월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8이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1이었다.

2) 아동의 낙관성 척도(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 : YLOT)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ydney등(2005)의 YLOT(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를 한 명의 이중 언어 사용자와 연구자가 함께 번안하여 1인의 상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하였다. 표적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이고 LOT-R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어 14개 문항 중 12개 문항만이 낙관성을 측정하고 2개 문항은 가짜 문항(filler item)이다.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은 다시 6개의 긍정적 진술문항과 6개의 부정적 진술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ydney 등(2005)의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의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이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8이었다.

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 척도(Child's Perceive Parental Reinforcement Scale : CPPRS)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ee, Park과 Im(2004)이 제작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척도(Child's Perceive Parental Reinforcement Scale : CPPRS)를 사용하였다. CPPRS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2번, 4번, 11번, 14번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다. 6점 Likert 척도로 (1=아니오, 6=네)로 되어 있는 CPPRS의 점수범위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 20점에서 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부터 받았다고 지각하는 긍정적 강화가 높은 쪽을 가리킨다.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표적 집단으로 제작된 CPPRS는 Cronbach's α 내적합치도 계수($n=449$)는 .87(아버지)과 .85(어머니)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일주일 간격($n=47$) .76(아버지)과 .84(어머니), 3주일 간격($n=60$) .67(아버지)과 .82(어머니), 3주일 간격($n=60$) .67(아버지)과 .82(어머니), 4주일 간격($n=62$) .81(아버지)과 .87(어머니)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관련한 척도만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이었다.

4) 학교적응척도(the Questionnaire to Measure Adaptability in School : QMAS)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검사는 김용래(2000)가 제작한 것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게 이점순(2006)이 재구성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문항구성은 5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영역은 '교사적응', '수업적응', '친구적응', '환경적응', '생활적응'이다. 하위영역별 각각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한 반응 척도는 Likert식 5단계 척도에 의해 '항상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배점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적응척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는 교사적응 .80, 수업적응 .76, 친구적응 .76, 환경적응 .61, 생활적응 .76, 전체가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어머니의 낙관성 척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 척도, 아동의 낙관성 척도, 아동의 학교적응 척도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LOT-R(1), YLOT(2), CPPRS(3), QMAS(4)의 조합은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A set(1-2-3-4)와 B set(4-3-2-1)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성별이 비슷한 비율이 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과 AMOS 4.0에 의해 처리되었다.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변수(아동의 낙관성)를 이용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1은 완전매개모형으로서 어머니의 낙관성과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아동의 낙관성이 완전매개하는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구조모형이고 모형 2는 모형 1과 비교하였을 때 어머니의 낙관성이

부모 역할모델과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어 아동의 낙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근거(Scheier & Carver, 1993)하는 부분매개모형으로서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의 낙관성에 대한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고자 하는 구조모형이다. 두 모형간의 차이점은 어머니의 낙관성이 실생활에서 외현화되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자극하는 긍정적 강화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으로 어머니의 역할 모델이 아동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와 긍정적 강화를 통해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에 대한 양육행동 또는 훈육방식으로서 외현화되는 과정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근거한다면,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아동의 낙관성이 완전매개효과를 하는 완전매개모형보다는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낙관성에도 영향을 미치나 어머니의 낙관성이 실생활에서 외현화되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긍정적 강화를 통해 아동의 낙관성에 효과를 주고 긍정적 강화와 아동의 낙관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더 좋다고 예상할 수 있다. 위의 두 모형은 AMOS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추정 방법으로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 사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1. 기초통계결과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표준편차 및 평균을 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어머니의 낙관성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정적 상관을 보이고 어머니의 강화도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정적 상관을 보여 모든 변수 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아동의 낙관성 매개효과모형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의 낙관성이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아동의 학교적응 간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두 구조 모형(경쟁모형은 완전매개모형으로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표 1> 관찰변인 간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N = 231)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모낙관 1	7.90	1.73	1															
2.모낙관 2	7.27	1.59	.65**	1														
3.모낙관 3	7.04	1.61	.58**	.51**	1													
4.강화 1	24.90	4.46	.44**	.42**	.49**	1												
5.강화 2	21.27	4.51	.42**	.39**	.43**	.66**	1											
6.강화 3	20.83	4.60	.38**	.29**	.34**	.66**	.71**	1										
7.강화 4	20.57	4.66	.40**	.40**	.30**	.66**	.65**	.69**	1									
8.낙관성 1	8.97	2.08	.50**	.36**	.42**	.56**	.53**	.42**	.51**	1								
9.낙관성 2	8.70	1.92	.39**	.36**	.34**	.52**	.49**	.47**	.55**	.60**	1							
10.낙관성 3	8.53	1.98	.34**	.32**	.36**	.56**	.55**	.50**	.50**	.69**	.57**	1						
11.낙관성 4	8.58	2.01	.38**	.28**	.40**	.51**	.51**	.45**	.43**	.58**	.52**	.65**	1					
12.생활적응	19.39	3.89	.32**	.29**	.33**	.44**	.45**	.38**	.40**	.37**	.43**	.38**	.38**	1				
13.환경적응	19.74	5.92	.30**	.13*	.28**	.39**	.44**	.43**	.31**	.43**	.40**	.43**	.49**	.40**	1			
14.친구적응	19.65	4.11	.30**	.27**	.33**	.47**	.45**	.40**	.33**	.45**	.44**	.44**	.44**	.46**	.44**	1		
15.수업적응	19.05	4.30	.37**	.37**	.29**	.46**	.50**	.49**	.56**	.42**	.57**	.46**	.42**	.62**	.40**	.44**	1	
16.교사적응	20.80	5.10	.26**	.25**	.29**	.42**	.41**	.40**	.35**	.33**	.37**	.37**	.41**	.45**	.41**	.45**	.45**	1

모 낙관 1, 2, 3 = LOT-R 어머니의 낙관성 하위척도; 강화 1, 2, 3, 4 = CPPRS 긍정적 강화 하위척도; 낙관성 1, 2, 3, 4 = YLOT 아동의 낙관성 하위척도; 생활적응, 환경적응, 친구적응, 수업적응, 교사적응 = QMAS 학교적응 하위척도 ** $p < .01$, * $p < .05$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아동의 낙관성이 완전매개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가설모형은 경쟁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부분매개모형으로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낙관성에 대한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검증)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경쟁모형과 가설모형에 대한 χ^2 차이검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231)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경쟁모형	264.77	101	.000	.983	.988	.084(.072-.096)
가설모형	177.42	98	.000	.992	.994	.059(.045-.073)

<표 3> 모형비교를 위한 χ^2 차이검증 결과

	$\Delta\chi^2$	Δdf	결정
경쟁모형 vs 가설모형	87.35	3	기각(.01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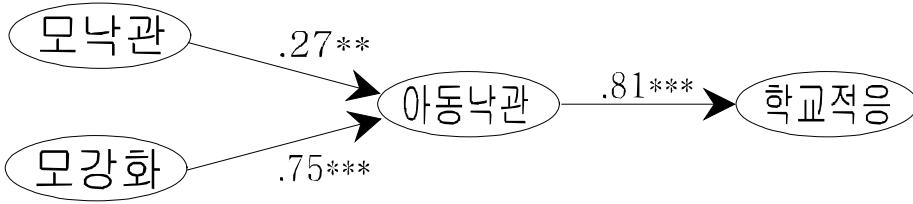
두 모형에 대한 χ^2 검증 결과에 따르면,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χ^2 값은 264.77과 177.02로 두 모형은 모두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검증은 영가설이 너무 엄격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모형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홍세희, 2000). 여기서는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Goodness-of-fit-measure)로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모형임을 의미하는데, .95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부적합을 측정하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의 일종으로 .05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며, .08이하에서는 합리적인 모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Browne & Cudeck, 1993), 최근에는 .06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경쟁모형 완전매개모형의 TLI는 .983, CFI는 .988이므로 이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RMSEA는 .084(90% 신뢰구간 .072 - .096)로써 합리적 모형으로 해석되는 .080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값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경쟁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는 양호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각 경로계수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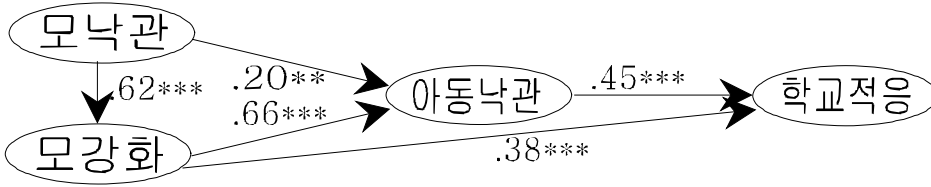
가설모형 부분매개모형의 TLI는 .992, CFI는 .994이고 RMSEA는 .059(90% 신뢰구간 .044 - .072)이므로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가설화된 구조 모형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1$). 또한 <표 4>에는 가설 모형의 비표준화 및 표준화 값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어머니의 낙관성 \Rightarrow 아동의 학교적응’만 유의미하지 않았고 나머지 경로는 모두 유의미하여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낙관성 \Rightarrow 아동의 낙관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했고 ‘어머니의 낙관성 \Rightarrow 긍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 \Rightarrow 아동의 낙관성’, ‘아동의 낙관성 \Rightarrow 아동의 학교적응’, ‘긍정적 강화 \Rightarrow 아동의 학교적응’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학교적응에 대한 효과의 시발점이 어머니의 낙관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은 내재적 관계에 있으므로 χ^2 차이검증 결과를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과 경쟁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 및 χ^2 차이검증 결과를 보면, χ^2 차이검증치가 유의미하므로 보다 복잡한 모형인



[그림 2] 경쟁 모형

N=231, * p<.05, ** p<.01, *** p<.001



[그림 3] 가설 모형에 대한 검증결과

N=231, * p<.05, ** p<.01, *** p<.001

<표 4> 경로계수(가설 모형)

모수 parameter		추정치	C.R.
어머니의 낙관성	⇒ 아동의 낙관성	.228** (20)	2.545
어머니의 낙관성	⇒ 긍정적 강화	1.556*** (62)	7.932
어머니의 낙관성	⇒ 아동의 학교적응	.112 (.06)	0.736
긍정적 강화	⇒ 아동의 낙관성	.304*** (.66)	7.845
긍정적 강화	⇒ 아동의 학교적응	.288*** (.38)	3.406
아동의 낙관성	⇒ 아동의 학교적응	.737*** (.45)	3.907

주: 추정치는 비표준화계수이고 괄호안의 값은 표준화계수임.

*은 p<.05수준, **은 p<.01수준, ***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임.

가설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를 요약해보면, 적합도 지수 비교결과 경쟁모형 보다는 가설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더 좋게 나타났고 두 모형간의 χ^2 차이검증 결과가 유의미하였으므로 구조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에는 본 연구에서 채택된 가설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잠재변수에서 '어머니의 낙관성'은 3개, '긍정적 강화'와 '아동의 낙관성'은 4개, '학교적응'은 5개의 측정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각 측정변수의 요인계수는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각 잠재변수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측정변수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조모형의 검증에서 잠재변수간의 상관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는데 모든 변

<표 5> 관찰변인의 요인계수(가설 모형)

측정변수	비표준화된 요인계수	표준화된 요인계수
어머니의 낙관성		
모 낙관성 1	1.000***	0.839
모 낙관성 2	0.825***	0.755
모 낙관성 3	0.777***	0.698
긍정적 강화		
강화 1	1.000***	0.821
강화 2	1.021***	0.830
강화 3	1.034***	0.823
강화 4	1.022***	0.803
아동의 낙관성		
낙관성 1	1.000***	0.805
낙관성 2	0.845***	0.738
낙관성 3	0.967***	0.820
낙관성 4	0.900***	0.750
학교적응		
생활적응	1.000***	0.709
환경적응	1.312***	0.611
친구적응	0.984***	0.660
수업적응	1.174***	0.752
교사적응	1.158***	0.627

*** $p < .001$

<표 6> 잠재변인 간 상관(가설 모형)

	1	2	3	4
1. 어머니의 낙관성	—	.69**	.67**	.52**
2. 긍정적 강화		—	.65**	.53**
3. 아동의 낙관성			—	.45**
4. 학교적응				—

$N = 231$, ** $p < .01$ (양방향)

수 간에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고 어머니의 낙관성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정적 상관을 보이고 긍정적 강화도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정적 상관을 보여 모든 변수 사이에 정적 상관이 유의미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매개변수(아동의 낙관성)의 효과를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 낙관성의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각 모형의 적합도 및 χ^2 차이검증 결과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설모형의 적합도가 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 낙관성의 매개 효과와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경쟁모형과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에 영향을 주고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며 아동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면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아동의 낙관성이 완전매개효과를 하는 완전매개모형보다는 어머니의 낙관성이 긍정적 강화를 통해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더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낙관성은 지속적인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적응에 효과를 미치고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행동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Seligman, 1991)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과거의 경험이나 부모의 역할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Scheier & Carver, 1993)한 것과 내용이 일치하고 성인 초기의 성향적 낙관성에 관해 부모 행동에 대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중요한데 특히 어머니의 칭찬과 신임이 중요하다는(Peterson & Bossio, 1991)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낙관성과 아동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어머니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낙관성이 높아지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긍정적 강화도 높아지게 된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는 아동의 낙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어머니의 낙관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동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진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의 의의와 상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적인 성향이 아동 발달과 아동의 학교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한 개인의 낙관적 성향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가 보이는 행동이나 생각 또한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보다 긍정적이라 예상할 수 있고(Scheier & Carver, 1985) 많은 연구(Chemers, et al, 2001; Deptula, et al, under review; Jaycox, et al, 1994)를 통해 낙관성은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만족도, 학습동기, 학교 적응, 자기존중감 등 아동의 학교생활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Seligman(1991)은 낙관성과 같이 인생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고 하였다. 낙관성은 학습이 가능하고 한 번 숙달되면 스스로 유지되

는 속성이 있으며 비관적인 사람도 낙관성의 기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밝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어릴 적에 비관적인 인생관을 습득한 우울한 아동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슬픈 감정, 사회적 위축, 무기력감, 희망상실, 심리-운동 협응 손상, 학업 및 사회적 실패감, 초조감, 무망감, 불면증, 식욕감퇴, 자살에 대한 생각 등에 빠질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사회적 현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초등학교 때부터 아동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같은 학교부적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비관을 극복하고 낙관성을 향상시켜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과 같은 의도적인 교육적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낙관성에 영향을 끼쳐 학교적응에 효과를 미치는 경로에 대한 이 연구에서의 주요한 시사점은 사회적이고 시대적 이슈인 아동의 학교 적응에 관한 문제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과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아동의 문제점이 심각한 가운데 이 연구결과는 그 해결을 위한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어머니가 얼마나 낙관적이냐에 따라 아동이 낙관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으로 아동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생활이 중요함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아동만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 아동지도 뿐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이 적응에 좋은 보호 요소가 된다는 기존 연구에 덧붙여 본 연구는 어머니의 낙관성이 그 성향 자체로 영향을 주기보다 양육과정에서 긍정적인 강화를 촉진시키고 긍정적 강화는 아동의 성향적 낙관성을 증진시켜서 학교 장면에서의 건강한 적응을 돕는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어머니의 낙관성이 양육과정의 긍정적 강화를 촉진시켜서 나아가 긍정적 강화를 통해 아동의 학교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기보다 낙관적 성향이 주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양육환경이 아동의 낙관성과 적응에 기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낙관성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낙관성 향상에 효과를 주고 긍정적 강화라는 외현화를 통해 아동의 낙관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중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아동이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매우 강력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어머니의 낙관성이 아동의 학교적응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으나 긍정적 강화는 아동의 학교 적응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삶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아동에게 의미 있는 효과가 있고 그것을 행동화하여 자녀에게 표현하였을 때에는 더욱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

듯이 어머니에 대한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의 구안 시 행동화가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는 표본의 크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는 경기도의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사람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낙관성의 표집대상이 3-6학년이고 어머니의 긍정적 강화에 대한 측정도구의 표집대상이 5-6학년임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5-6학년으로 한정되었으나 1-6학년의 초등학교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개발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낙관성을 향상시키는 변인으로 한 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등 가정의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만을 선택하였는데 아버지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도 함께 보거나 긍정적 강화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여 주 양육자의 긍정적 강화를 연구해 아동의 낙관성에 대한 가정의 역동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 외에도 낙관성을 향상시키는 변인에 대한 탐색은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에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은 Seligman(1995)이 구안한 것으로 유익무익한 상태이나 언어의 번안과정에서 오류가 존재하고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는 등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동의 낙관성에 있어 어머니의 낙관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이 시점에서 아동뿐 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낙관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아동들의 문화에 맞는 낙관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성수 (2006). 어머니의 낙관성이 양육태도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유아교육연구, 9, 145-170.
- 김용래 (2000). 학교학습동기척도(A)와 학교적응척도(B)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17, 3-39.
- 김지현 (1996). 서울지역 중학교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적응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신현숙, 류정희, 이명자 (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1-요인 모형과 2-요인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학교, 2(1), 79-97.
- 양옥경, 최경민 (2001). 한국인의 한과 탄력성; 정신보건사회사업에의 적용.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7-29.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 윤정숙, 이지연 (2006).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강화가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7(2), 289-306.
- 윤치연, 이영순, 이효신, 천성문 공역 (2002). 행동수정.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점순 (2006). 담임교사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장금순 (2005). 민속놀이를 활용한 초등학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차유림 (2001). 아동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홍세희 (2000). 문항반응 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임상심리학회, 3차 workshop.
- 황매향 (1999). 주의력 결핍 아동에 대한 행동수정 기법. 이성진, 김계현(편), 교육심리학의 새로운 쟁점과 이동. 서울: 교육과학사.

- Abidin, R. P.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 of Clinical Child, 21*(4), 401-412.
- Belsky, J. (1984). Two waves of day care research: developmental effect and conditions quality in R.C. anslie(ed.) the child and day care setting. *New Research Quaterly, 3*, 235-272.
- Carver, C. S. & Gaines, J. G. (1987). Optimism, pessimism, and postpartum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ch, 11*, 449-462.
- Cassidy, J., Parke,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hang, E. C. (1998a). Dispositional optimism and primary and secondary appraisal of a stressor: Controlling for confounding influences and relations to coping and psychological phys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09-1120.
- Chang, E. C. & Sanna, L. J. (2001). Optimism, pessimism, and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in middle-aged adults: a test of a cognitive-affective model of psychological adjustment. *Psychology and Aging, 16*(3), 524-531.
- Chemers, M. M., Hu, L., & Garcia, B. F. (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1), 55-64.
- DeKlyen, M., Speltz, M. L., & Greenberg, M. T. (1998). Fathering and early onset conduct problems: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father-son attachment, and the marital context.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 3-21.
- Deptula, D., Cohen, R., Phillipsen, L. C. & Ey, S.(under review). *Expecting the best: optimism as a predictor of childrens social behaviors and peer relationships.*
- Dodge, K. A. (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201-218. Hillsdsle, NJ: Erlbaum.
- Ey, S., Hadley, W., Allen, D., Palmer, S., Klosky, J., Deptula, D., Thomas, J., & Cohen, R. (2005). A new measure of children's optimism and pessimism: 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46*, 548-558.
- Faller, G. (2001). Positive psychology: a paradigm shift. *Journal of Pastoral Counseling, 36*, 7-14.
- Fischer, M. & Leitenberg, H. (1986). Optimism and pessimism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 241-248.
- Garber, J., Quiggle, N., Panak, W. & Dodge, K. (1991). Aggression and depression in children:

- Comorbidity, specificity, and social cognitive processing. In D. Cicchetti & S. L.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xpressions of dysfunction*(pp.225-264). Hillsdale, NJ: Erlbaum.
- Gudsa, L. J., Koocher, G.P. & Wypij, D. (1991). Perceptions of medical complia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ystic fibrosis.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2*, 236-242.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Hilsman, R., & Garber, J. (1995). A test of the cognitive diathesis-stress model of depression in children: academic stressors, attributional style, perceived competence an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370-380.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aycox, L. H., Reiovitch, K. J., Gillham, J. & Seligman, M. E. P. (1994). Preven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school children. *Behavioral Research Therapy, 32*, 801-816.
- Kashani, J. H., Reid, J. C. & Rosenberg, T. K. (1989). Levels of hopelessn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96-499.
- Kazdin, A. E., French, N. H., Unis, A. S., Esveld-Dawson, K. & Sherick, R. B. (1983).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ntent among psychiatrically disturbed inpatient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504-510.
- Lee, D. Y., Park, S. H., & Im, J. Y.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hild's perceived parental reinforcement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Ewha Womans University.
- MacLeod, A. K. & Moore, R. G. (2000). Positive thinking revisited: positive cognitions, well-being and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 1-10.
- Marshall, G. N., Wortman, C. B. , Kusulas, J. W., Hervig, L. K., & Vickers, Jr., R. R. (1992). Distinguishing optimism and pessimism: Relations to fundamental dimensions of mood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6), 1067-1074.
- Merhrabian, A., & Ljunggren, E. (1997). Dimensionality and content of optimism-pessimism analyzed in terms of the PAD temperament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5), 729-737.
- Miller, D. L. (1999). *Discipling Nations: The Power of Truth to Transform Cultures*. Seattle: YWAM.
- Neverlien, P. O. & Backer, J. T. (1991). Optimism-pessimism dimension and dental anxiety in

- children aged 10–12 years. *Community Dental Oral Epidemiology*, 19, 342–346.
-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P. (1986). Learned helplessness in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f depression, achievement, and explanatory style. *American Psychological Assn*, 51(2), 435–442.
-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P. (199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05–422.
- Peterson, C. (1999). Personal control and well-being. In D. Kahneman & E. Diener & N. Schwartz(Eds.), *Well-being: the Foundation of Hedonic Psychology(pp. 288–301)*. New York, NY, US: Russell Sage Foundation.
- Peterson, C. (2000). The future of optimism. *American Psychologist*, 55, 44–55.
- Peterson, C. & Bossio, L. M. (1991). *Health and optimism: new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thinking and physical well-being*. New York: Free Press.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cheier, M. F. & Carver, C. S. (1993). On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the benefits of being optimistic.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 26–30.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Simon & Schuster.
- Seligman, M. E. P. (1995). *The optimistic child*. New York: Harper/Perennial.
- Seligman, M. E. P.,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eligman, M. E. P., Rashid, T., & Parks, A. C. (2006). Positive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61(8), 774–788.
- Seligman, M. E. P.,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421.
- Sharpe, J. N., Brown, R. T., Thompson, N. J., & Eckman, J. (1994). Predictors of coping with pain

in mothers and their children with sickle cell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 1246-1255.

Snyder, C. R., Hoza, B., Pelham, W. E., Rapoff, M., Ware, L., Danovsky, M., Highberger, L., Rubinstein, H., & Stahl, K. J. (199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ildren's hope scal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2, 399-421.

Sydney, E., Hadley, W., Allen, D. N., Palmer, S., Klosky, J., Deptula, D., Thomas, J., Cohen, R. (2005). A new measure of children's optimism and pessimism: 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5), 548-558.

Symister, P., & Friend, R. (2003).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problematic support on optimism and depression in chronic illness: a prospective study evaluating self-esteem as a mediator. *Health Psychology*, 22(2), 123-129.

Werner, E. E. &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 논문접수 2007년 8월 10일 / 1차 심사 2007년 9월 5일 / 2차 심사 2007년 9월 18일

* 김주용: 경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신대 상담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인천대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있다.

* e-mail: roktem@hanmail.net

* 이지연: 이대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계명대 교육학과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대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인천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이타주의자들의 심리적 특성'대 상관계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 e-mail: becoming@inchehon.ac.kr

Abstract

Effect of mother's optimism and reinforcement on child's adaptability in school: with child's optimism as a mediating variable

Ju-Yong Kim* · Jee-Yon Le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any relationship among mother's optimism, reinforcement and the child's optimism and ability to adapt in school. In particular, the study aimed analyze any mediating effects of child's own optimism on his or her ability to adapt in school, mother's optimism and reinforcement what were the any effects of mother's optimism expressed through reinforcement on the child's optimism and adaptability in school. The study was conducted among 231 fifth and sixth grade students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mothers in Kyoung-gi province in Korea. After measuring four different variables, mother's optimism and reinforcement and the child's optimism and adaptability in school,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s. A high fit index of this modeling analysis demonstrates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s optimism on his or her adaptability in school, mother's optimism and reinforcement. And the analysis validated the general effects of mother's optimism expressed through reinforcement on the child's optimism and adaptability in school. In addition, this paper discussed previous research done on the topic and offere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Optimism, Reinforcement, Adaptability in school

* Graduate School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Incheon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University of Incheon